

6. 언론에서 본 수영구

부산일보

2010년 01월 15일
05면

● 적은 돈으로 베풀 큰 이웃사랑

독거노인 마음 데우는 연탄 1천장

■ 수영구 환경미화원
'수영 그린 봉사단'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동참했습니다."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이웃을 돕고 있어 장난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부산 수영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04명. 이들은 2008년 1월께 '수영 그린(Green) 봉사단'(이하 봉사단)을 결성한 뒤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이 봉사단을 꾸리게 된 것은 관내 곳곳을 청소하면서 도움을 나누고 싶은 이웃을 많이 만나면서다. 외부 단체로부터 연암이 되면 각종 지원을 받고 있던 이들은 더 어려운 이웃에게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데 뜻을 모으고 봉사단 결성에 전원이 합심했다.

구체적으로 보일러 수리와 도배, 담장 수리 등을 전담하는 기술지원반 2개팀과 이웃집 운반과 환경 정비 등을 맡은 노력봉사반 2개팀으로 나뉘며 매월 셋째주 토요일 2~4시간씩 봉사활동에 나섰다. 청소하다가 발견한 이웃을 돕기도 하지만 구청에 도움을 요청해 대상자를 구하기도 했다.

업무가 무척 고되긴 하지만 이웃을 도울 때만큼은 힘이 난다는 이들. 하지만 도배와 심크대 수리 등 기본적인 기술 밖에 없다보니 봉사



수영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수영 그린 봉사단' 단원들이 지난 9일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을 만들고 있다. 제공=수영구청

어려운 이웃 위한 집 수리 봉사 '의기투합'
최근 점심값 아껴 산 연탄, 노인들에 배달

에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토로했다. 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고(58·수영구 광안동) 단장은 지난해 말 수영구 말미동에 거주하는 70대 독거노인 집 수리에 나섰다. 당시 할머니가 거주하던 방과 화장실이 30여m나 떨어져 있는 까닭에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해서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했다. 김 단장은 "마음 같아서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수리해주

고, 이동식 변기도 설치해드리고 싶었지만, 기술도 없고 돈도 없다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털어놨다.

지난 9일에는 예정에 없던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봉사단 소속 미화원들 20여명이 점심값을 아껴 연탄 1천장을 구입했다. 동장군이 연일 맹위를 떨치자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이 걱정됐던 것이다. 구입한 연탄 1천장을 직접 차에 싣고 나

르고, 독거노인들에게 250장씩 배달했다. "정말 고맙다"며 연신 손을 흔드는 노인들 모습에 참가자들 모두 가슴이 뭉클했다고 한다.

환경미화원 생활 14년째인 김유곤(56·수영구 수영동)씨는 "연탄을 쌓을 공간이 없는 좁은 집을 보며 마음이 더 아팠다"면서도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봉사하는 보람이 절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여간만 된다면 좀 더 자주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이들은 힘이 달는 한 끝까지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단장은 "다들 고급 기술을 연마해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 한다"며 활짝 웃음지었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20.5*20.3)cm

국제신문

2010년 01월 18일
25면

부산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지난 14일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8.3*6.1)cm

한국일보

2010년 02월 05일
14D면

부산 수영구 '패밀리 데이' 운영

매월 셋째주 수요일... 가족친화환경 조성

부산 수영구는 직원들의 가족기능 회복을 돕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매주 셋째주 수요일을 '패밀리 데이(Family Day)'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영구에 따르면 '패밀리 데이'는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을 포함해 600여명의 전 구청 직원이 직장업무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특히 수영구는 시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청 직원이 '패밀리 데이'에 가족과 함께 아웃백 남천점, 빙스 남천점 등 관내 패밀리형 음식점 2개소와 소극장 AN아트홀-Red를 이용할 경우 일정률을 할인해 주도록 약정을 맺었다.

또한 앞으로 관내 상공인회 회원

과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체, 각급 학교 등에서도 '패밀리 데이' 운영에 동참을 유도하고 일과 가정의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욱 수영구청장은 "직원들이 구청업무에 바쁘지만 한달에 하루만 큰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와 문화생활하기 등으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이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14.8*7.2)cm

국제신문

2010년 02월 08일
10면

주민센터, 직통전화로 주민과 소통

망미1동 업무별 전화 개설 호평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이 고객 상담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응답서비스(ARS)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수영구의 한 동주민센터가 업무별 직통전화를 개설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지방병무청 인근에 위치한 망미1동주민센터. 입구에 들어서면 책상에 올려진 업무와 담당자 이름이 적힌 팻말 옆에 흰색 종이봉투가 눈에 띈다. 봉투 앞면에는 다른 동주민센터가 사용하는 일반 종이봉투와 같은 양식의 발신자 주소가 인쇄돼

있었지만 뒷면에는 9개 전화번호와 번호별 업무가 빼곡히 적혀 있다.

망미1동이 업무별 직통전화를 사용한 것은 지난해 6월 동주민센터를 이전하면서부터다. 수영구는 망미1동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지역에서 인구(3만600명)가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해 업무별 직통전화를 놓기로 했다. 자체 회선을 증설, 번호 개설비도 거의 들지 않았다. 처음에는 각종 행사나 통·반장을 통해 업무별 전화번호를 홍보하다 올 1월부터 광고를 원하는 지역 병·의원 협찬으로 업무별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봉투 5000부를 제작, 벌써 2000여 부를 배포했다.

기초생활수급을 위해 망미1동주민센터를 자주 찾는 한모(여·54) 씨

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원금 수령에서 소소한 민원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할 일이 많아 직통전화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며 "교환을 통하지 않고도 담당자와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어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가장 많이 걸려오는 번호는 망미1동주민센터의 대표번호다.

정성철 동장은 "업무별 직통전화를 사용한 뒤에도 자주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업무 외에는 대부분 대표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며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신 분들은 편리한 업무별 직통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주민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15.5*11.1)cm

부산일보

2010년 02월 23일
06면

정월대보름 행사 '풍성'

오는 28일 경인년正月대보름을 맞아 부산지역 곳곳에서 대보름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날 오후 3시 부산 남구 이기대 공원 어울마당에서는 '2010 이기대 달맞이 축제'가 열린다. 월출시간인 오후 5시 57분께 높이 12m, 지름 8m에 이르는 대형 달집태우기 행사가 진행된다. 같은 시각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제 14회 수영전통달집놀이'가 개최된다. 대형 달집태우기 행사에 앞서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2호인 수영농청놀리와 함께 태평무 등이 공연되며, 지신밟기와 강강술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이날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관광객과 지역민 등 30여 만명을 대상으로 '제 28회 해운대 달맞이 온천축제'가 펼쳐진다.

오후 5시에는 어선들이 갈매기떼들과 함께 만선의 기쁨을 안고 오륙도에서 해운대로 돌아오는 '오륙귀범'이 재현된다.

일몰시간인 오후 6시 18분께에 맞춰 20m높이의 달집 태우기 행사가 거행된다. 이와 함께 강강술래와 월



부산지역 달맞이 축제 행사

장소		행사시작
남 구	이기대공원 어울마당	오후 3시
수 영 구	광안리해수욕장	오후 3시
해 운 대 구	해운대해수욕장	오전 11시
서 구	송도해수욕장	오전 10시
영 도 구	한국해양대 제2캠퍼스부지	오후 3시
금 정 구	스포원 (금정체육공원)	오후 4시

령기원제가 진행된다.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일대에서는 오전 10시 장군산에서 산신제를 지낸 뒤 오후 4시 40분께 지신밟기 행사를 시작으로 '2010正月대보름 송도달집 축제'가 막을 올린다.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 제 2캠퍼스부지에서도 '正月대보름 달맞이 축제'가 선보인다. 이밖에 송정해수욕장과 다대포해수욕장, 부산 금정구 스포원(금정체육공원) 등 부산 전역에서正月대보름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윤여진 기자 onlypen@



지난해正月대보름에 열린 이기대 달맞이 축제에서 오륙도 무용단이 불이 붙은 달집을 둘러싸고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부산 남구청

(11.2*21.8)cm

부산일보

2010년 02월 25일
06면

지자체 캐릭터도 '상표 등록 시대'

일선 지자체들이 앞다퉈 구 상징 캐릭터를 특허청의 상표로 등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부산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가 구 상징으로 개발한 '고등어 캐릭터'가 지난 5일 특허청의 상표로 등록됐다. 지난 2008년 시민 공모를 통해 탄생한 고등어 캐릭터는 서구 '고등어 축제'에 등장하면서 관심을 받았고 이후 서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 했다. 서구는 한 발 더 나가 고등어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해 '경제적 이익'과 '지역 홍보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구는 고등어 캐릭터가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생선류, 시계 및 귀금속, 식당 및 음식점 등 7가지로 정하고 관련 업체와 접촉중이다. 특히 3월 중으로 고등어 가공업체와 상표사용을 위



부산 서구 캐릭터



부산 수영구 캐릭터

한 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고등어 축제 때 고등어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액세서리와 티셔츠, 모자 등 기념품 등을 제작해 지역 홍보에 나선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제 서구의 고등

어 캐릭터가 각종 제품의 상표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미 상표 등록을 한 지자체는 동래구 해운대구 영도구 등이다.

부산 수영구청도 구의 상징 캐릭터인 '수아&영이'의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수영구청은 지난 4월에 '수아&영이'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으로 신청했으며 다음달 중으로 상표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기념품제작 업체들은 수영구의 수아&영이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 수영구청과 협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수영구청 또한 올해 4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어방축제' 수아&영이를 기념품 등에 활용해 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황석하 기자 hsh03@

(16.9*12.4)cm

국제신문

2010년 03월 09일
29면

시민단체 '갈매기 친구들'(회장 배정선)은 지난 7일 오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파크호텔 앞 백사장에서 제15회 갈매기 환송제를 개최했다.

(8.3*6.1)cm

일상속의 바다 - 숨겨진 보석

문화 가로지르기

바다에 면한 도시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출퇴근 때는 물론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는 특히나 그렇다. 광안리가 집이고 영도가 직장이니 말이다. 광안리 해변에서 부두길을 거쳐 부산대교를 건너고 영도 해안선을 따라 조도에 이른다.

도시에서 살면서 이처럼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출퇴근 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멋진 일이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부산대교 구간을 제외하고 충장으로 부두길은 컨테이너로 막혀 있고, 영도 산업도로는 공장들로 가려져 바다를 볼 수 없다. 절영로 쪽으로 돌아가 본다. 시야가 확 트이는 바다 풍경은 가히 절경이다. 여기저기 떠있는 배들이 햇살과 함께 한 폭의 풍경을 만든다. 굳이 보려고 가기 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바다를 즐기는 것을 잊고 지내게 된다.

하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바다를 바라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가 감탄스럽게 즐긴다. 절영로나 태종대 그리고 달맞이 고개를 이런 면에서 바깥에도 잘 알려진 명소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가 보았거나 늘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곳들이다. 장을 보러 나오거나, 약속장소에 갈 때도 늘 볼 수 있는 그런 곳. 너무나 익숙해서 그곳의 멋진 풍경이 의식되지 않는 곳. 부산에는 그런 곳이 곳



지하철 금련산역으로부터 이어진 길에서 광안리를 바라본 풍경. 멀리 광안대교가 떠 있다. 빛과 그림자에 따라 시시각각 느낌이 다르다. 다들 어지르지 않은 원석 같은 공간으로 생활속 명소가 될 수 있겠다.
사진 제공=안웅희 교수

곳에 숨어 있다.

건물의 병풍 사이를 달리는 수영로에 그러한 보석 하나가 있다. 지하철 금련산역과 광안리 해변을 연결하는 길이 그곳이다. 이곳은 수영로를 지나치다 보면 거의 유일하게 바다를 보여주는 시각 통로이다. 이곳에 서면 남북으로 달리는 수영로와 광남로 광안해변로를 동서로 관통하여 저 멀리 바다를 배경으로 광안대교까지 볼 수 있다.

길이는 비록 400m 남짓한 화려하지 않은 거리이지만, 양쪽에 늘어선 건물들의 적절한 스케일과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훌륭한 장면을 볼 수 있다. 거리 자체가 하나의 요지경이 되어 바다를 보여준다. 이곳에 서면 샌프란시스코의 케이블

카가 떠오른다. 어지러운 전봇대와 전선줄은 전동차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얼마 전 바닥포장을 개선하면서 다듬고 있다. 바다와 금련산 역을 오가는 사람들과 깔끔한 가로풍경, 우뚝 선 광안대교가 조화로운 풍경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길이 금련산까지 연결된다면 더 훌륭할 것이다. 부산의 이곳저곳에서 바다를 보지만 바다를 자연스레 볼 수 있는 이 길은 더 친근하고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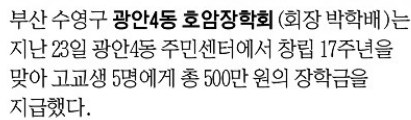


안웅희

한국해양대 교수

(16.4*19.4)cm

2010년 03월 26일
34면



국제신문

2010년 03월 30일
23일

■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산

이은정 기자 elisa@kookje.co.kr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나라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1.2명밖에 불과하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려는 여성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가족문제 전문가들은 가족의 중요성,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적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가족'을 꼽고 있다. 가장이 바로 사회의 근간으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기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산하 문화·체육시설을 가족단위 고객들이 연중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할인 요금제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가족친화 사회를 만들어야 저출산
해결

정부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08년 14개 기업·기관에 이어 지난해 20개 기업·기관이 새로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제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병행'으로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선에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다.

2008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부산은행은 ▷임산부 출근 1시간 배려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 거

주지 인근 지점 전곡 ▷임산부 전자파 차단복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킴팜 퍼스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입학식 때 가족 초청, 주말농장 분양, 부모토끼 강과 등 가족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 경영이 직원 만족도 향상, 이직률 감소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공공기관과 총사업 50영역 안에 기업체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가족친화교육'에 나선다. 가족친화 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2~4명씩 자격을 취득하였나요? 부부관계 행복지수 높이기, 우리 가족과 잘 소통하기? 행복한 은퇴를 위한 모든 것? 나와 내 가족을 찾아 다니는 여행 등을 주제로 기업체 가족이 원하는 내용과 시간에 맞춰 이뤄진다. 전문 강사가 진행하며 매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가족사랑 강좌·별보가·연극 등 다채로운 가족 프로그램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대발 셋째 주 수요일을 '패밀리 데이(Family Day)'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목적이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민간기업의 참여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날 공무원 야근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정착에 정부가 적극적이다.

부산 수영구는 이달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을 포함해 600여 명의 전 구형 직원이 정시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수

저출산·고령화 문제
가족이 해법 인식 확산

부산銀 등 34개 기업·기관
정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부산시는 할인요금제 도입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공공기관 '패밀리 데이'
정시퇴근 운동 장려

민간기관·단체는
각종 문화강좌·이벤트



영구 망미동(주)한일씨엔에스 등 2개 기업에도 매일 한 차례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운동에 동참했다. 특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청 직원 이 '패밀리 데이'에 가족과 함께 이웃 백 남천점, 빽스 남천점 등 패밀리리얼 음식점 2곳과 소극장 AN아트홀-ReD를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도록 약속도 맺었다.

부산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곳은 해마다 대에 어울리는 교육·문화가, 가족·친밀·만남, 열의와 기쁨을 가족·포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관계 향상, 노후생활 교육 등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다음 달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가정정신 야채미'를 만든다. 다음 달 20일 전장상 부산여성개발원 원장의 '변화와 시련을 전하는 사회' 그리고 가족을 주제로 D·조진희 작가 조진희 대표이사 '나'를 살린 '자신' 삶의 가치와 사랑을 '나'로 표현하는 '변화'를 위한 사람들이 재교육, 은의 재구성, 부부·세대·대에 이르기까지 (051-330-3470)

극단 레오들은 가족이 함께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가족연극 교실을 다음 달 7월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무료로 연다. 초등학교생과 학부모가 함께 몸을 부대끼고 감정을 표현해서 역할극, 즉흥극을 통해 자아를 깨울 수 있다. 이극단 김영삼 대표는 "가족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있다"며 "가족연극 문화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051)3-55-5555

한지공 청소년 수련관은 온가족이
별을 보면서 마술·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일일천막 무료그라운드 ▶
음달 10일 ▶6월 12일 ▶9월 12일 ▶
11월 13일 오후 6시 무료로 연다. '음악
과 함께 별'을 만나는 밤이 주제로 별
자리 이해, 천체망원경 조작법, 별자
리만 만들기, 계절별 별자리 관측, 국
악 연주회, 마술 퍼포먼스, 불기타 연
주, 카테일쇼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
친다. (051) 406-5223

국제신문

2010년 04월 15일
09면

광안리 해변 양끝 친수공간으로

민락 횃집구간엔 전망대·분수
삼익비치 쪽은 산책로 조성
물에 발 담글 수 있는 스탠드도

창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무질서하게 방치돼 온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의 동쪽과 서쪽 해변 일대가 문화와 여가가 넘쳐나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난다.

수영구는 테트라포트로 채워져 접근하기 어려운 광안리해수욕장의 동서 양쪽 연안 구간을 시민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꾸미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영

구는 올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비 4억 원을 확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 74억 원을 확보해 연내 착공, 내년 상반기 중 완공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1.4km에 이르는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 양쪽 끝으로 민락동 야외무대~부산횃집 235m구간과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앞 220m구간이다.

횃집과 노점상이 늘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락동 야외무대~부산횃집 구간은 범선 형태의 전망공간과 조형분수 광장 수목과 벤치 등의 휴식 공간이 들어선다. 삼익비치아파트 방면에는 물길을 이용한 공간과 함께 산책로가 만들어진다. 양 구간 모두 매립 당시에 독 형태로 일괄적으로 정비된 이

후 시민이 바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계단형의 스탠드를 설치해 바닷물에 발을 담글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수영구는 올 여름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민락동 수변공원 앞바다에서 광안대교의 야경을 감상하며 공원을 즐길 수 있는 해상 야외공연장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해상야외공연장은 육상에서 40m가량 떨어진 바다 위에 260㎡ 규모로 설치된다.

이와 함께 수영구는 수영교~민락매립지 수변공원 끝단에 이르는 수영강변 1250m 구간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으로 꾸미는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15.5*11.1)cm

국제신문

2010년 04월 20일
29면

부산오륙도골든벨클럽(회장 김사중)은 지난 16일 부산 수영구 지역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할 쌀 80포대를 수영구청에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6.3*5.7)cm

국제신문

2010년 04월 23일
34면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관장 이상용)은 지난 21일 복지관 3층 경로식당에서 전통향토음식연구회(회장 박주호)의 후원을 받아 노인 50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6.3*5.6)cm

朝鮮日報

2010년 04월 29일
35면

민락수변공원 야외공연장 준공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에 야외공연장(사진)이 세워졌다.

부산 수영구는 "사계절 휴양관광지인 민락수변공원 친수공간에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 '다이아몬드 크루즈'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 4일 오후 6시 준공식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무대는 반원형 바다에 크루즈선 모양의 테두리를 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크루즈'란 무대 이름을 형상화한 크루즈선 테두리엔 광안대교 그림이 그려져 있고, 'See You'란 문구가 적혀 있다. '다이아몬드 크루즈'란 이름은 광안대교의 애칭인 '다이아몬드 브리지'에서 비롯됐다.

이 무대는 탁 트인 바다와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경으로 자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조 때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수영구는 "만조 때엔 마치 해상 무대처럼 보이는 환상적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대 앞의 객석엔 햇빛과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늘막이 쳐 있다.

준공식 날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무용단, 수영구여성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단체는 수영구 문화공보과(☎051-610-4049)에 신청하면 된다.

박주영 기자

(20.6×9.7)cm

東亞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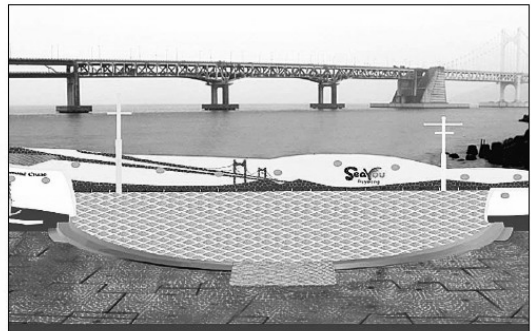
2010년 04월 29일
16D면

바다 위에 야외공연장이 뜬다 부산 민락수변공원 앞 바다에 '다이아몬드...' 내달 4일 준공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락수변공원 앞 바다에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졌다. 수영구는 사계절 휴양관광지인 공원 친수공간에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인 '다이아몬드 크루즈' 조성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4일 준공식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첫 해상 야외공연장인 다이아몬드 크루즈는 탁 트인 바다와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1억8000만 원을 들여 육상에서 40m가량 떨어진 바다에 기둥을 세운 뒤 가로 26m, 세로 8.5m, 면적 222.9㎡(약 67평)의 야외무대와 전기시설 등으로 꾸몄다. 공연장 앞 육지부에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길이 75m, 높이 5m, 폭 6m의 그늘막 2동도 설치했다.

박현욱 수영구청장은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이나 관광객이 각종 문화 공연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락수변공원에 일몰 때면 바다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변하는 야외공연장 조감도. 사진 제공 수영구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 문의 051-610-4049. 조용희 기자 silent@donga.com

(15.5×9.3)cm

성년의 날 맞아 ‘전통 성년식’ 마련

(2010년05월06일 16시13분)

(아시아뉴스통신=김수진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은 제38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수영사적공원 놀이마당에서 올해로 만 20세가 되는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통 성년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수영구가 주최하고 (사)동련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제38회 성년의 날을 맞아 만 20살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삼한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성년식으로 성년식 집례는 (사)예종원이 맡아 진행하며, 만 20세가 된 청소년 18명이 수영구 대표로 참가한다.

성년식은 관자(남자)에게 유건과 도포를 입히고, 계자(여자)에게 비녀를 꽂고 족도리를 씌워주는 삼가례와 술 또는 차를 마시는 법도를 가르치는 초례, 이름대신 자(字)를 내려주는 명자례에 이어 성년이 됐음을 선언하는 성년선언 순으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성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수영구 전통 성년식을 시작으로 17일 성년의 날 당일까지 다양한 전통 성년식이 부산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둔 16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기장문화예절학교, 성년의 날 당일인 17일에는 부산 동래구 동래향교에서 각각 전통성년예식이 펼쳐진다.

같은날 부산 사상구 여성시민회관에서는 전통성년식을 현대에 맞게 재연하고 축하공연도 가질 예정이다.

국제신문

2010년 05월 14일
08면

광안리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2013년까지 3kW급 20기 설치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소형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된다.

수영구는 오는 2013년까지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민락동 어항방파제에

3kW급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영구는 내년 2월까지 3kW급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해 오는 2012년까지 2년간 소형풍력발전 적합성 연구를 벌일 예정이다.

예상 생산전력은 하루평균 10만 5120kW로 연간 나무 1만6818그루

(46.75 t)를 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생산전력은 민락동 수변공원 주변 가로등 사용 전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소형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홍보 효과는 물론 광안대교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5.5*5.6)cm

부산일보

2010년 06월 04일
02면

선거도 끝났고... 부·울·경 축제로 물들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다음주 광안리어방축제·남해 다랭이 논 축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6·2 지방선거가 끝난 부산·울산·경남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지난 3월 천안함 침몰로 일정이 연기됐던 '광안리 어방축제'가 개최 10돌을 맞아 가족 단위의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기를 얻어 나갔다.

4일 부산 수영구청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광안리 어방축제에서는 광안리 해변을 따라 걸으며 바다빛 미술관 작품 등 수영구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축제문화존 걷기 체험행사와 물고기 탈 만들기 체험행사 등 가족단위 관광객과 지역민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폭 신설됐다.

울산시는 SK에너지와 공동으로 4~13일 울산대공원 장미계곡에서 110만 송이가 전하는 행복향기 '제5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를 개최한다.

'장미의 선물(Gift of a Rose)'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장미축제는 메인 행사, 특별행사, 전시·체험행사, 행복카페 & 나눔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장미축제 개막·정동식'은 4일 오후 8시 장미원 계곡 이벤트 마당에서 열린다. 전시·체험행사는 야생화 전시(4~13일), 보여주는 시조 축제전(5~9일), 장미 케릭터 공모전 전시(10~13일), 장미 케익 및 공예품 만들기 체험(5~13일) 등의 행사가 열린다.

경남 양산시와 매내곶골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65-



6월 부산·경남·울산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경남 남해군에서 열린 '다랭이 논 축제'에서 어린이들이 모내기 체험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남해군청

333-0172)는 "오는 13일까지 원동면 영포리 매실다목적광장 일대에서 '양산 원동매실체험축제'가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체험축제는 매실을 직접 따 수 있는 체험행사는 물론 직접 따 매실을 가져갈 수도 있다. 또 매실 장아찌 만들기 비법을 비롯해 매실 아이스크림 맛보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도 마련돼 있다.

농촌진흥 테마마을로 이름난 경남 남해군 가천 '다랭이 마을'이 오는 12, 13일 이틀간 '다랭이 논 축제'를 연다.

올해로 내빈래 열리는 이 논 축제에서는 수백년에 걸쳐 바닷가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국가 명승지 가천 '다랭이 논' 일대에서 전통 농경문화

와 다채로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는 12일 오후 2시, 식전 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손 모내기 체험과 황소 씨래질 체험, 논 썰매 타기, 논 생태 관찰하기, 뱀목타기 등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이 펼쳐진다. 문의는 다랭이마을 홈페이지(http://darangy.go2vil.org).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옥포대첩 승전을 기념하는 '제 48회 옥포대첩기념제전'이 경남 거제시내 일원과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오는 16일 제례 봉행과 임란사료전에 이어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3개 분야 35종목의 문화행사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거제시문화원이 주관하고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도비 500만원과 시비 1억9천 500만원이 투입된다. 19일에는 시민 노래자랑과 KNN& 유랑극단, 시민 노래자랑 등 17종목이 20일에는 기념식 등 12종목이 치러진다.

이선규·장영호·윤여진기자

sunx@kusan.com

(26.0*14.1)cm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 자원봉사자 준비 완료

기사입력 : 2010년06월04일 14시21분(아시아뉴스통신=이해곤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이 오는 11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제10회 광안리 어방 수영구축제”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수영구청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가해 교육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영구청)

국제신문

2010년 06월 09일
10면

11일 개막 광안리어방축제 대형 스크린 그리스전 중계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전통어촌 민속문화 축제를 즐기고 월드컵도 응원하세요.”

부산 수영구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전통어촌의 민속문화를 소재로 한 제10회 광안리어방축제를 개최한다. 광안리 어방축제는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에 설치됐던 어방의 전통민속인 ‘좌수영어방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 ‘수영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농청놀이(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호)’ 등의 전통

어촌의 민속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부산을 대표하는 봄축제다.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수영구는 12일 오후 8시부터 광안리해수욕장에 초대형 스크린을 설치, 남아공 월드컵 대한민국 첫 경기인 그리스전 응원전을 펼친다.

(10.2*9.1)cm

“주민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 박현욱 부산 수영구청장

영유아 보육지원사업 확대

광안리 문화 랜드마크 조성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최고 득표율로 재임에 성공한 부산 수영구 박현욱(55·사진) 청장은 구 정활동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청장은 “선거 때 많은 주민들이 생활 속 정책을 많이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며 “환경과 체육, 문화 등 생활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는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또 복지 최우수 자치 단체의 명성에 걸맞게 주민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등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을 확대해 젊은층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수영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LED가로등 시범설치사업 △폐·공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구민 문화강좌와 생활체육교실을 늘리고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마련해 수영구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들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골목 자동청소 차량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또 생활 정책에 초점을 맞추며 ‘떠 있는 아일랜드’ 조성 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안리 앞바다와 광안대교 사이에 5~7m 높이의 수면 위에 컨벤션 센터와 각종 문화 시설들이 들어선 복합문화 공간을 대대적으로 조성해 광안리의 또다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수영구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 자원인 광안리는 지난 4년간 바다 빛 미술관 조성 과 거리 정비 등으로 예전에 비해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활력도 되찾았다”면서도 “해운대 못지않게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광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적극 민자 유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수영구 장기발전 계획인 ‘비전 2020’을 하루빨리 수립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수영구를 만들어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여진 기자

(14.6×14.6)cm

東亞日報

2010년 06월 11일
250면

광안리어방축제 오늘 개막

전통어촌 민속 문화 축제인 제10회 광안리어방축제가 11~13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다. 어방 축제는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에 설치됐던 전통 민속놀이인 좌수영어방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 수영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농청놀이(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호)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행사다.

‘어기영차, 신나게 놀아보자’라는 주제로 38개 단위 행사로 꾸며진다. 어방 그물끌기를 비롯해 걷기 체험 행사와 물고기탈 만들기, 어방 사진 공모전, 주민자치발표회 등이 마련돼 있다. 12일에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그리스전)를 보면서 태극전사를 응원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5.1*9.8)cm

국제신문

2010년 06월 14일
01면

부산 해수욕장 월드컵 응원 ‘환상의 명소’

12일 그리스전 4만여명 몰려
해운대-광안리 붉은파도 넘실

송진영 장호정 기자 roll@kookje.co.kr

해수욕장이 ‘바다도시’ 부산의 월드컵 거리응원 명소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원정 대회 사상 처음으로 유럽팀을 격파한 지난 12일 밤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은 4만여 명의 ‘붉은 파도’로 넘실댔다.

한국-그리스전 시작을 4시간여 앞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은 붉은색으로 뒤덮였다. 붉은 악마들이 운집한 해운대 백사장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가로 22m, 세로 13m 크기(1000인치짜리)의 초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남아공 월드컵 현장의 열기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전반 7분 만에 이정수의 발끝에서 결승골이 터지자 3만여 명의 붉은 악마가 뿜어내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박수경(48·해

운대구 좌동) 씨는 “부산이 아니면 어느 도시에서 해수욕장 응원을 해 보겠느냐”며 “파도소리가 ‘대한민국’의 합성에 맞춰 반주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응원대는 17일 밤과 23일 새벽에도 열린다.

이날 광안리해수욕장에도 붉은악마 1만 명이 모였다. 어방축제(11~13일)가 열린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오후 3시께부터 어방축제와 월드컵 응원전이 달아오르며 축제 분위기가 고조됐다. 400인치 스크린을 통해 관람하던 시민들은 후반 7분 박지성의

환상적인 썸볼이 터지자 서로를 열싸안고 환호의 탄성을 질렀다. 가족과 함께 참가한 황진숙(여·42·부산 연제구 연산동) 씨는 “탁 트인 바다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광안리해수욕장 응원은 어느 길거리 응원보다 훨씬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들 해수욕장을 비롯해 곳곳에서 월드컵 응원전이 펼쳐진 이날 부산 지역은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때에 비해 사건사고나 각종 소란행위가 현저하게 주는 등 한층 성숙한 시민의식과 응원문화를 보여줬다.

(20.8*9.1)cm

국제신문

2010년 06월 16일
12면

車없애고 문화 채운 주말밤 광안리 해변

내달 1일부터 차없는 거리
밤 9시~새벽 1시까지 운영
야외음악회 등 거리공연 풍성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올여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은 주말이면 '문화의 거리'로 변모한다.

수영구는 '광안리 차 없는 거리(연양불고기 골목~만남의 광장)'를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밤 9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4회째인 올해 '차 없는 거리'의 특징은 노천카페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각종 문화공연이 들어서는 점이다. '차 없는 거리' 시행 여부를 놓고 빚어진 지역 상인 간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더욱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내·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의 차량을 통제하면 민락회촌 등 일부 상권이 타격을 받는 점을 고려해 상인 주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문화공연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영구는 7월에는 영화음악을 주제로 한 야외음악회를, 8월에는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바다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해변도로에서 펼쳐지는 거리공연도 강화된다. 판토마임 마술 줄인형공연 등의 특색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총 200회의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연극·뮤지컬 공연도 잇따라 열린다. 오는 8월 13일부터 15일부터 사흘간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을 비롯해 새롭게 설치된 무대에서 제7회 광대연극제가 개최된다.

또 지역 극단의 아동극 창작극 뮤지컬 공연도 8회 예정돼 있다. 민속품 유화그림 한지·금속 공예 등을 체험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아트마켓도 마련된다.

(10.2*17.5)cm

국제신문

2010년 06월 18일
10면

부산 기초단체장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개발보다 생활밀착형 정책 펼칠터’

■ 박현욱 수영구청장 당선자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박현욱(55) 수영구청장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각계각층의 주민을 직접 만나보니 대형 개발사업보다는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주민의 바람과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LED 가로등 시범설치사업 ▷폐·공가



활체육교실을 늘리고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청소를 위해 자동청소 차량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 최우수 자치단체의 명성에 걸맞게 주민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정비 등 복지·환경·생활 분야의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는 “주민 문화강화와 생

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젊은 층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런 생활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부산지역 최고 득표율(63.75%)로 재선에 성공한 것과 관련,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4년간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수영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15.4*11.1)cm

朝鮮日報

2010년 07월 13일
31면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동백섬 해양레저기지...

부산 바다, '선진국형 놀이터 변신' 본격화

부산의 바다가 '선진국형 놀이터'로 변신하고 있다. 물에 몸을 담그고 놀이를 하거나 일광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윈드시핑·카누·해양레프팅·제트스키 등 해양레포츠의 천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주차장에서 해양레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는 동백섬 주차장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61척의 보트를 댈 수 있는 해양레저 스포츠시설을 건립하는 것. 민간자본 83억원이 투입된다.

해양레저 교육센터 역할을 할 이 시설의 클럽하우스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야외전망데크도 마련된다. 이르면 오는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0일 해운대구 우동 APEC나루공원에서 '수영강변 해양레저 계류장' 공사가 시작됐다. 18억원의 민자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APEC나루공원 옆 수영강변에 계류장(2925㎡)과 관리센터(428㎡, 지상 2층), 주차장(1600㎡, 총 52면) 등을 짓는 것이다.

계류장은 가로 65m, 세로 45m에 수영장과 장비보관소·탈의장·공원데크 등으로 이뤄진다. 관리센터엔 매점·휴게실·강의실·사무실·화장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9~10월 좁이면 공사가 끝나고 범퍼보트와 카약·카누 등 8종류의 다양한 무동력 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해운대구측은 보고 있다.

동백섬과 수영강은 이제 시작된 케이스 이미 완공된 곳도 있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의 '해양레포츠센터'다. 지난달 말 준공,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14억원을 들여 1층짜리



부산시가 재개발을 추진 중인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6년 준공된 뒤 너무 오래되고 낡아 슬럼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 경기장이 대형 미리나 시설로 재개발될 경우 부산의 '해양 레포츠 천국화'는 가속을 받을 전망이다.

광안리센터 6월 말 준공 동백섬·수영강 연내 완공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동

571㎡ 규모로 지어진 이 센터는 장비보관실·탈의실·샤워실·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수영구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해양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여기에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커뮤니티 등도 추진 중이다. 송정 콘트론타워는 오는 9월쯤, 송정 해양레저거점점은 10월쯤 각각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준공될 계획이다.



지난 9일 착공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조감도.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변신도 주목 대상이다. 부산시는 지난 7일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1986년 지어져 오래되고 낡은 데다 좁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요트경기장을 재개발, 한국 남부권의 허브 미리나 시설로 육성하자는 구상에 따라 개최됐다. 설명회엔 삼성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현대건설 등 41

개의 국내의 업체들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이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현재 440척 규모의 요트계류장을 606척 규모로 키우고 클럽하우스·식음시설·요트 및 보트 전시·판매시설 등 각종 편의·상업시설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대형 마리나를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부산시 성덕주 체육진흥과장은 "향후 3개월간 '제3차 제안공모'를 거쳐 오는 10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뒤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체결·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에 이어 내년 연말이나 2012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13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며 "요트경기장 재개발 등에 힘입어 향후 5~6년 뒤면 부산의 전 해역은 해양레포츠의 요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park21@chosun.com

(20.7*23.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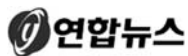


광안리 ‘차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

광안리 ‘차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 (7월 14일)
(부산=연합뉴스) 부산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 개장 기간 매주 토·일요일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해변도로를 ‘차없는 문화의 거리’로 운영한다.

차없는 거리는 언양삼거리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750m 구간에 모두 18차례 진행된다.

차없는 거리구간에는 노래, 춤, 연극, 색소폰 연주, 마임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부산 수영구, 지리산 폐교에 주민휴식공간 마련 부산 수영구, 지리산 폐교 수련원으로 활용



부산 수영구 수련원 조감도

(부산=연합뉴스) 부산 수영구 수련원 조감도. 수영구는 자매도시인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자락의 폐교인 토지초등학교 송정분교를 수련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5천210㎡ 규모의 수련원은 3층류 7개 방이 있는 건물(274㎡)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 지방기사 참고 >> 2010.6.20.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자매결연지인 전남 구례군 토지면에 수영구 수련원을 건립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19일 오후 2시 두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수영구는 폐교된 토지초등학교 송정분교를 지난해 12월에 매입, 올해 초부터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꾸몄다.

부지 5,210㎡, 건축면적 389㎡의 규모의 수영구 수련원은 초현대식 펜션(24㎡형 3개실, 36~37㎡형 2개실, 47㎡형 2개실)과 관리동,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련원 주위에는 천연잔디와 수목, 화단, 산책로 등 조경시설이 조성됐으며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 야외 조망시설도 마련됐다.

수영구는 “하천변의 큰 나무 그늘아래에 이용객들이 앉아 쉴 수 있는 평상을, 운동장에는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아름다운 경치도 즐기면서 휴식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수영구 수련원은 23일부터 자매결연지인 구례군과 울릉군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수영구에 위치한 학교, 공공단체, 사업체도 이용이 가능하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15 11:20 송고

한겨레

2010년 07월 16일
12B면

부산 수영구 구례수련원 19일 개원

부산 수영구는 자매결연을 맺은 전남 구례군 토지면에 수영구 수련원을 지어 19일 오후 2시 두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수영구는 폐교된 토지초등학교 송정분교를 지난해 12월 사들여 올해 초부터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 휴식공간으로 꾸몄다.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5.8*5.2)cm

중앙일보

2010년 07월 16일
R04면

수영구, 구례에 수련원

폐교 리모델링 19일 문 열어

펜션 숙박·물놀이 ... 유료 운영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에 있는 옛 토지초등학교 송정분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수련원으로 바뀌어 19일 구례군·수영구 기관단체장과 마을 주민 등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연다. 구례군과 자매결연 중인 수영구는 지난해 12월 폐교를 2억원에 매입, 그간 5억1000여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수련원은 대지 5210㎡, 건축면적 437㎡ 규모다. 펜션 7개(24㎡형 3개, 36㎡형 2개, 47㎡형 2개)와 관리동을 갖췄다.

23일부터 유료로 운영하며, 요금은 펜션의 크기와 이용 시기에 따라 2만~7만원이다. 문의 및 예약 전화: 061-782-1800 (구례 수련원), 051-610-4121(수영구청 평생교육담당).

수련원은 한수천 계곡을 끼고 있어 물놀이도 가능하다. 펜션 건물은 폭 3.5m의 테라스를 만들고 이동식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할 수 있다. 운동장에는 족구·배드민턴 코트 등을 만들었다.

박현욱 수영구청장은 “수련원을 수영구뿐 아니라 자매결연한 구례군 및 경북 울릉군 주민과 수영구 소재 학교·공공단체·사업체도 이용할 수 있다”며 “동서지역 간 화합에도 기여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해석 기자 lhsaa@joongang.co.kr

(4.9*16.9)cm

국제신문

2010년 07월 20일
11면

전남 구례에 ‘수영구 수련원’ 폐교가 동서화합의 장으로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아이고, 반갑습니다이!” “아따, 오시느라 고생했구마요~.”

19일 오후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 송정리에 있는 옛 토지초등학교 송정분교에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가 넘실거렸다. 1996년 폐교한 이 분교는 이날 부산 수영구 수련원으로 간판을 새로 달고 두 자치단체의 사랑방으로 바뀌었다.

수영구는 이날 옛 토지초등학교 송정분교에서 ‘수영구 수련원’ 개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현욱 구청장 등 수영구 직원들과 구례군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수영구와 구례군 주민들은 수련원 바로 옆으로 흐르는 한수천 계곡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며 친분을 다졌다.

수영구는 지난해 12월 폐교한 송정분교 부지를 2억 원에 매입, 5억 1000여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

옛 토지초등 송정분교 개축
펜션 등 숙박·편의시설 꾸며
“지역경제 도움” 반대주민 설득
23일부터 유료로 운영

를 했다. 수련원(대지 5210㎡·연면적 437㎡)은 숙박이 가능한 펜션 7개(24㎡형 3개·36㎡형 2개·47㎡형 2개)와 관리동, 각종 편의시설로 꾸며졌다. 수련원 주위에는 천연잔디와 수목, 화단, 산책로는 물론 밤에도 마을 놓고 거닐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 설치됐다.

수영구가 구례군에 수련원을 세우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송정분교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때부터 박현욱 구청장과 수영구 직원들은 “송정마을에 수련원이 들어서면 동서화합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며 주민 설득에 나섰다.

이에 이곳 주민들은 수차례 마을 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한 끝에 결국 수영구에 분교를 내주기로 했다. 송정마을 박문재(65) 이장은 “주민 사이에는 10여 년 전 폐교된 분교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자금이 없어 고민이 많았다”며 “마을 주민 중 몇몇이 분교를 매입할 생각이 있었지만 수영구 수련원으로 개발하면 동서화합이라는 명분도 있고 두 지역 주민 교류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현욱 구청장은 “기꺼이 분교를 내주신 마을 주민을 위해 농촌체험, 산촌체험, 역사체험 등 구례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련원은 오는 23일부터 유료로 운영하며, 요금은 펜션 크기와 이용 시기에 따라 2만~7만 원이다. 수영구민과 수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단체, 그리고 구례군민과 율통군민만 이용할 수 있다.

(15.5*16.6)cm



수영구 보건소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부산=연합뉴스) 부산 수영구 보건소는 신체활동이 급격히 저하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예방교육, 운동지도, 건강검진 등을 해주는 ‘하하호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영구 보건소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팀을 구성, 호암 경로당 등 8곳을 매월 한차례씩 돌며 관전유연성 운동, 근력 강화운동, 올바른 잇솔질 및 틀니관리방법 등을 전달하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28 09:33

부산일보

2010년 08월 06일
01면

폭염 잡은 인정

“동네 어르신들 ‘한증막 노인정’ 생활 안타까워”

박봉 환경미화원을 십시일반 에어컨 2대 선물

“땀통같은 노인정에서 고생하실 어르신들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최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수영구 생활쓰레기 운반 청소대행업체 ㈜정민과 ㈜자산 소속 환경미화원 70여 명이 6일 오전 부산 수영구 망미2동 ‘수영강변노인정’을 방문, 1·2층에 각각 새 에어컨을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다.

전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쉬지 않고 수영구 전역의 쓰레기를 수거한 뒤 오전에 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지만, 이날 만큼은 어르신들을 위해 휴식을 반납했다. 에어컨 설치를 돕는데 이어 노인정을 비롯한 주변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해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정성을 쏟았다.

이들이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에어컨을 기증하기로 한 것은 지난 6월 말,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노인정 앞을 지나다가 어르신 10여 명이 도로가에 나와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르신들은 노인



정이 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두어 대 있는 선풍기는 전혀 제 기능을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70~80세의 어르신들은 “한여름에는 노인정이 한증막과 같아 아예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직원들 일부는 사내 경조사 모임에 이를 알렸고, 어르신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던 중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에어컨을 사드리기로 뜻을 모았다.

환경미화원 생활 17년째인 박장양(49·부산·수영구 광안동) 씨는 어르신 들기에 적극 동참한 케이스. 박 씨는 쓰레기 수거 때마다 망미동과 수영동 등 고지대에는 홀로노인을 비롯한 힘든 이웃이 여럿히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형편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다. 월급여 150만~200여만 원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에 달하는 성금을 선포 내렸다. 이렇게 한달여 동안 십시일반 모은 돈은 200만 원. 회사도 동장해 100여만 원을 쾌척했다.

㈜정민 김영복 상무는 “직원들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더 힘든 이웃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며 “노인정의 매월 전기료 일부분도 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

(25. 7·9. 9)cm

한국일보

2010년 08월 13일
12B면

광대연극제 오늘 광안리서 개막

제7회 광대연극제가 13일 오후 8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광안리 해수욕장 만남의 광장과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다. 야외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번 연극제에는 극단 맥의 ‘내 마음의 풍경’ 등 7개 작품이 선보인다.

광대연극제는 ‘연극은 광대들의 이

야기’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광대’는 부산의 관광명소인 광안대교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한편 수영구에 있는 소극장 3곳에서 관람을 할 때 광안리 만남의 광장, 수영관광안내소, 구청 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광대연극제 홍보물을 제출하면 내달 19일까지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강성명기자

(10.2*4.5)cm

朝鮮日報

[부산·울산·경남] ‘환경미화원·스튜어디스·마술사·공무원...’ “나도 넉넉하진 않지만 더 힘든 이웃 도와야죠”

권경훈 기자 werther@chosun.com

입력 : 2010. 08. 12 23:06

십시일반 정성 에어컨 기증 삼계탕 대접 난치병 성금도
“관심가지면 모두 가능해요”



12일 오후 부산 수영구 망미2동 ‘수영강변노인정’. 하루 전 태풍이 지나가면서 다소 내려갔던 수은주는 이날 다시 치솟으면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다. 찜통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노인들은 더위를 잊고 있었다. 지난 6일 에어컨 2대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그

동안 선풍기나 부채로 더위를 식히려했으나 너무 더워 역부족이었다”며 “이제는 너무 시원해 노인정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

‘더위’로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선행이 잇따르고 있다.

이 노인정의 에어컨은 수영구 생활쓰레기 운반 청소대행업체인 (주)청민과 (주)자산 소속 환경미화원 70여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정 노인들에게 기증한 것. 수영구에는 청소대행업체가 이들 두 곳밖에 없어 서로 관계도 돈독하다.

▲ 지난 5일 부산 양정동 동의과학대 교내 식당에서 김영도 부총장 등 교직원 봉사단이 홀몸노인 등 300여명을 초청해 한방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용우 기자 yw-kim@chosun.com 두 회사의 환경미화원들은 수영구 전역의 쓰레기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수거한 뒤 퇴근한다. 그러나 지난 6일은 퇴근 후 쉬지도 않고 에어컨 설치와 노인정 주변 청소까지 도왔다. 이날 에어컨 기증은 평소 쓰레기 수거 중 노인들이 노인정이 아닌 도로가에 나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게 계기가 됐다. “왜 나와 계시느냐?”고 묻자

10여명의 노인이 “바람도 불지 않는데다 선풍기 2대가 고작이어서 노인정 안에서는 너무 더워 쉴 수가 없다”고 답했던 것이다.

지난 6월 말 직원들과 함께한 회사 내 회의에서 ‘에어컨 기증’ 건의가 나왔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돕자”고 뜻이 모아졌다.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성금이 나왔다. 회사도 동참해 100여만원을 내놓았다. 모두 200만원을 모아 에어컨 2대를 살 수 있었고, 노인정 1·2층에 각각 1대씩 설치했다. 노인정에 있는 할아버지 40여명과 할머니 20여명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민과 ㈜자산축은 노인들이 전기세를 걱정하자, 월 10만원가량의 전기세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환경미화원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정기적이지만 노인정에 한 달에 1~2번 정도 계절 과일이나 술 안주 등을 수 년째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망미동의 고1, 중1인 형제에게 쌀과 67만원을 교통비 등에 쓰라며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형제의 어머니는 위암말기로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 달 병원비만 200만원이 넘고, 아버지까지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상태여서 도움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청민 김영복 상무는 “직원들의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려는 마음만은 넉넉하다”면서 “직원들로부터 많은 점을 본받는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비행기 승무원들이 공항이 아닌 금정구 남산동 한 식당으로 달려갔다. 에어부산 승무원 봉사동아리 ‘블루엔젤’ 회원 20여명은 이날 남광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홀몸노인 100여명을 초대해 삼계탕을 대접하고 안마도 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다. 동의과학대학 교직원 봉사단은 지난 5일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학교로 초대, 삼계탕을 대접했고, 지난 6일 영도구 동삼1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도 지역 어르신 300여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를 가졌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착한 마술’을 선보였다. 지난 7일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에 참가했던 마술사들이 맨손에서 카드가 끝없이 나오는 마술에 사용되는 북한산 희귀 마술카드 등 자신들의 마술용품을 경매에 내놓아 수익금 131만원을 마련했다. 이 돈은 다음 날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부터 ‘난치병 학생 돕기 캠페인’을 펼쳐 상반기 2억여원의 성금을 모아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지역 저소득층 학생 64명에게 1억77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성금 모금에는 유치원과 초·중·고생들이 우유곽 저금통에 동전을 채우는 ‘사랑으로 채우는 우유곽’부터 교육청 직원, 교직원,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계좌이체 신청’ ‘사랑의 날개보내기’(1계좌 5000원) ‘사랑의 계좌 기부운동’(금액 자유) ‘ARS전화걸기’(060-700-1050)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종혁 대리는 “5년째 연중 진행되는 캠페인은 작은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해 어려운 형편에 몸까지 아픈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광안리 vs 해운대 ‘노는 물’ 이 다르다

올 여름 부산지역 해수욕장이 각기 특색 있는 테마 해수욕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에는 젊은 해수욕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광안리는 가족들이 주로 찾는 가족 중심 해수욕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최근 5년 전까지만 해도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뤘으나 올해 들어 광안리 해변을 따라 테라스형 레스토랑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가족 단위의 피서객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광안리해수욕장
차 없는 거리·놀이문화로 차별화
가족 피서객 부담 없는 휴식처



해운대해수욕장
젊은이·외국인·외지인 인산인해
가족들 몰렸던 수년 전과는 판판

가족과 함께 최근 부산의 친척집을 찾은 김지용(37·충남 아산) 씨는 지난 1일 오후 수 년 만에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젊은 여성과 근육질의 젊은 남성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눈을 어디에다 둘지 몰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년 전만 해도 해운대해수욕장에 가족이 피서 오는 것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며 “전날 오후 방문했던 광안리해수욕장 역시 아이들을 비롯해 애완견을 끌고 산책나온 부부가 많이 눈에 띄어 수 년 전과는 판판이었다”라고 놀라워했다.

이처럼 해운대해수욕장은 젊은 세대를 비롯한 외지인들이 무더기로 몰려드는 반면 광안리해수욕장은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과 주변 거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면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이 되고 있다.

14일 부산 수영구청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최근 5년 새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해수욕을 즐기는 연령층이 젊은 세대가 주축인 만큼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젊은 세대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족 단위 놀이객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해수욕철이면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도 올해는 크게 줄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성추행 등의 범죄는 외지에서 해변을 찾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광안리의 경우 가족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범죄가 크게 줄었다”라며 “해운대의 경우 무분별한 음주행위와 각종 사고가 많이 접

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광안리는 음주나 폭행 시비 등으로 경찰서로 연행되는 청소년도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광안리 일대에 야외 테라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증가한데다가 동화 구연과 민속놀이 등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 된 것도 이 같은 변화에 한몫하고 있다.

반면 해운대해수욕장은 젊은 세대를 비롯해 외국인과 외지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인과 무슬림의 방문이 크게 늘고 추세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광안리의 경우 한때 옛 명성만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야외 테라스 문화나 차 없는 문화의 거리 등 가족을 위한 문화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젊은 세대가 주 무대인 해운대와는 차별화 된 모습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국제신문

2010년 09월 02일
09면

피서객 상대 바가지요금·범죄 크게 줄었다

■올여름 해수욕장 결산

송진영 장호정 기자 robin@kookje.co.kr

올여름 부산지역 해수욕장은 알뜰 피서가 자리를 잡은 가운데 바가지 요금을 뿌리뺀 데 상당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수욕장 범죄도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암채 상환'과 쓰레기 투기 등 미성숙한 시민의식은 피서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바가지 요금' 크게 줄어
해수욕장 인근 숙박요금은 올해 '사전 경찰제'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해운대구는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일대 숙박업소 입구와 구형 홈페이지에 업소가 정한 요금표를 게시하는 '요금 상환제'와 이를 위반하면 초과 징수요금을 환불하고 해당 업소를



숙박요금 민원 한 건도 없어
일부 업소 '투브 바람' 논란
'물카족' 줄고 알뜰피서 정착
서부산권 다대포·송도 활기

구형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금 환불제'를 실시했다.

덕분에 올해 해운대구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해운대구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음료수값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은 여전했다. 주말에는 해수욕장 주변 사설 주차장이 '물카족'으로 원성을 샀고, 일부 피서용품 대여업체는 개인이 가져온 튜브 등 피서용품에 공기를 주입해 주고 '바람값'을 받는 암채 행각을 일삼았다.

■달라진 해수욕장 풍경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일 개장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30분 연장했고, 입욕제한시간에는 노상 폭우를 운영해 야간 피서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또 119

수상구조대와 부산해경 122구조대 간 공조체제가 구축되면서 이안류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때 큰 부상자 없이 물놀이객을 전원 구조했다.

특히 치안유지 활동이 강화되면서 범죄가 큰 폭으로 줄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카족' 적발건수는 지난해 (12건)보다 절반가량 줄 5건(성추행 포함)에 그쳤다. 적발된 절도범도 10대 2명에 지나지 않았다.

'잔물 피서'도 정착했다. 음식과 피서용품은 모두 집에서 가져오는 '알뜰 피서객'과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가격이 한 곳을 찾는 '똑똑한 피서객'이 크게 늘었다.

야간 도심 피서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박수변공원 앞은 먹을거리를 직접 가져와 먹는 알뜰 피서객으로 넘쳐났다. 또

광안리해수욕장은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갔다. 올해 4회째인 광안리 치없는 거리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이름을 바꾸고 문화공연을 확대하면서 광안리를 찾는 피서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서부산권 해수욕장 역진
서부산권에 위치한 다대포와 송도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크게 활기를 띄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바닷음악분수가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악분수를 보기 위한 관광객으로 붐볐다.

전국 최초의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도 옛 명성 찾기에 나섰다. 특히 송도해수욕장은 러시아 등 외국인에게 가장 좋아하는 해수욕장의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외국인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26.0+12.6)cm

한겨레

2010년 09월 14일
29면

이광재 강원지사·염홍철 대전시장 ‘매니페스토 대상’

이광재(위) 강원도지사와 염홍철(아래) 대전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선거공약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가 13일 발표한 ‘2010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 지사는 선거공약서의 창의성과 명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유일하게 예산 총계를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염 시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예비후보자 공약집 분야 대상에 선정됐다. 교육감 가운데에는 광노



현 서울시교육감이 대상을 받는다.

기초자치단체장 수상자 9명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박현욱 부산 수영구청장 △허

태정 대전 유성구청장 △조유행 경남 하동군수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예비후보자 공약집)이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12.0*8.6)cm

연합뉴스

부산 수영구청장,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수상



부산 수영구청장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부산=연합뉴스) 부산 수영구 박현욱 구청장(왼쪽)이 15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강지원 상임대표로부터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을 받고 있다. << 지방기사 참고, 수영구 >>

2010.9.15. ccho@yna.co.kr
 해운대구 최우수상..중구.사하구.연제구 우수상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수영구 박현욱 구청장이 6.2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을 갖고 박 구청장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김은숙 중구청장과 이경훈 사하구청장, 이위준 연제구청장이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8월16일부터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전국 260명의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의 공약사항(공약집, 선거공약서)을 평가했다.

평가는 10여명의 전문가 평가단이 창의성, 내용성, 형식성 3개 분야 22개 지표로 나눠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영구청장은 공약을 알기 쉽게 표현했고, 공약의 핵심방안과 그에 따른 목표, 우선순위, 연도별 재원을 명시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운대구청장은 선거공약서 발간을 위해 사전에 전문가 그룹의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공약을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준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방 선거과정에서 잘 만들어진 공약집과 선거 공약서를 발굴, 확산 시킴으로써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좋은 공약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cho@yna.co.kr

한국일보

2010년 09월 16일
 14D면

박현욱 수영구청장·조유행 하동군수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약속大賞 수상

박현욱(사진 위) 부산 수영구청장과 조유행(아래) 경남 하동군수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대표 강지원 변호사)가 6·2 지방선거 당선자 공약을 평가한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박 구청장은 공



약을 알기 쉽게 표현했고, 핵심방안과 그에 따른 목표, 우선순위, 연도별 재원 조달방안 등을 명시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 군수는 공약에 철학과 가치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데 노력함과 동시에 발전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이동렬기자

(10.2*6.8)cm

부산 수영강변도로 교통난 내년 해소 전망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수영구 수영강변도로가 내년 연말까지 확장돼 이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영구는 좌수영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9일 오후 3시 수영강변 도로 확장 및 테마거리 조성공사 기공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수영구는 길이 780m 폭 10m인 수영교-수영협성르네상스 아파트 구간 수영강변 도로를 2011년 12월까지 폭 30m로 확장하는 공사를 발주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25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좌수영로의 교통난이 해소되고 수영강변이 새로운 주민 휴식,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수영구는 기대하고 있다.

ccho@yna.co.kr

국제신문

2010년 09월 30일
10면



더 여유로운 수영강변을 위한 첫 삽 29일 부산 수영협성 르네상스 아파트 인근에서 열린 수영강변도로 확장 및 테마거리 조성공사 기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객채론 기자 kwakjh@kookje.co.kr

(20.8*10.1)cm

국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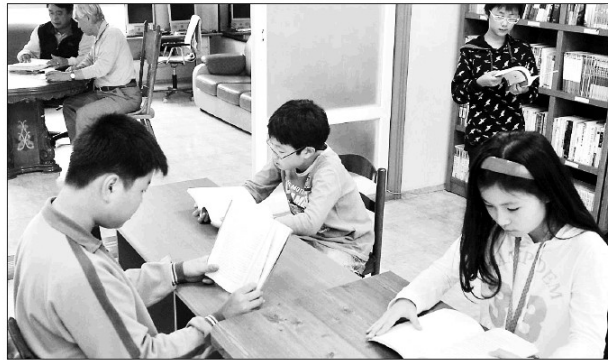
2010년 10월 05일
12면노인정 안 도서관
주민 사랑방으로

아파트 주민 품앗이로 마련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 비치그린아파트 노인정. 나무 현관 옆에 '비치그린아파트 한가죽 도서관'이라는 나무액자가 걸려 있었다. 노인정에 둘러앉아 정담을 나누는 어르신들 옆으로 아이들이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이 도서관은 120㎡ 남짓한 노인정 절반을 개조해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독서문화 저변확대와 주민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8월 초 노인정 도서관을 추진했다. 대표회의가 이 같은



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 비치그린아파트 노인정에 조성된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김성호 기자 kimsh@kookje.co.kr

뜻을 노인회에 전달하자, 노인회는 흔쾌히 승낙했다. 노인들이 내어 준 공간에 책장을 들여놓고 주민들은 집에 있는 책을 한 권, 두 권 기증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인정은 60여 일 만에 1000여 권의 책을 갖춘 번듯한 도서관으로 변모했다.

대표회의는 공간을 제공해 준 노인들을 위해 컴퓨터 2대를 마련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장년층에게 기초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대표회의는 앞으로 백일장을 여는 등 주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5.5*11.2)cm



부산 수영구 해양레포츠 무료 체험 인기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지난달 30일부터 10일간 마련한 '해양레포츠 시민 무료체험행사'에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무료 행사는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준공을 기념하고 해양레포츠 인구 저변을 확대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설위탁운영체인 부산해양레포츠연합회는 전문 강사와 인력구조원 등 12명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덩기요트, 윈드서핑, 카누, 카약 4개 종목의 이론설명과 안전교육을 했다.

주말을 이용한 가족단위 참여자들이 많았으며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에도 바다를 즐길 수 있다는 점과 평소 접하기 힘든 해양레포츠를 무료로 체험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수영구 관계자는 "앞으로 참가비를 내더라도 한번 더 체험하고 싶다는 시민들이 많아 이번 행사가 해양레포츠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ccho@yna.co.kr



광안리·다대포 등 우수 해수욕장 20곳 선정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부산 광안리·다대포 해수욕장이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으로 뽑혔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개장한 전국 316개 해수욕장을 상대로 지자체 자체 평가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우수 해수욕장 20곳을 골라 17일 발표했다.

이들 20곳은 부산 광안리·다대포 외에 인천 하나개, 울산 일산, 강원 경포대·속초·화진포·동호, 충남 춘장대·무창포, 전북 선유도, 전남 남열·외달도·우전, 경북 월포·대진, 경남 학동·송정, 제주 이호·중문 해수욕장이다.

국토부는 부당 요금 근절 등 운영·관리와 화장실·샤워장 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분야별로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뽑힌 우수 해수욕장에는 시설 개선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매년 평가해 지금까지 98곳을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했다.

keykey@yna.co.kr



부산 수영구 “공무원도 정치후원금 기부해요”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에 공감한 수영구청 공무원 137명이 오는 18일 정치후원금 1천365만원을 선관위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정치후원금 전달식에는 이정일 수영구선거관리위원장, 박현욱 수영구청장, 수영구청공무원노조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대신 선관위에는 기탁할 수 있다.

이를 받은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게 된다.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무원 등 공공기관·단체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ccho@yna.co.kr

수영구 다문화가정 화합의 장

(부산=연합뉴스) 부산 수영구 수영가인회(회장 박복희)는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의 결속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 광안3동에 위치한 유토피아 호텔 1층에서 다문화 가정 20가구 90여명을 초청, '다문화 가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25 16:57 송고

국제신문

2010년 11월 30일
10면



29일 부산 수영구 광미동 부산남일고 인조잔디 운동장 개장식에서 이선숙 교장, 유재중 국회의원, 박현옥 수영구청장 등이 테이프 커팅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 parksh@hookee.co.kr

남일고 인조잔디 운동장 시설 지역주민에 개방

이선정 기자

부산남일고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완공, 29일 개장식을 가졌다.

부산남일고 인조잔디 운동장은 5억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8월 착공해 최근 완공했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부산시교육청 외에 수영구청이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주요 시설로는 ▷축구장 2912㎡ ▷육상트랙 2개 레인 ▷다목적 운동장 1119㎡ ▷허리돌리기 역기들기 노컷기 등 생활체육시설 등이 있다. 학교 측은 지역 주민도 각종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이선숙 부산남일고 교장은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으로 축구장 농구장 축구장 등이 설치돼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도 건강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5.6×26.3)cm



〈부산소식〉 수영구 합창단 6일 명품콘서트

수영구 합창단 6일 명품콘서트

(부산=연합뉴스) 부산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6일 오후 7시30분 남천동 KBS 홀에서 '2010 수영구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수영구 합창단은 2004년 창단한 수영구 여성합창단과 2009년 6월에 창단한 수영구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된 예술단체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영구민을 위한 명품콘서트'라는 주제로 Nella Fantasia 등 유명 합창곡과 영화 '라이언 킹' 하이라이트 장면을 영상과 함께 뮤지컬 형식으로 구성해 재미와 품격이 함께하는 연주회로 꾸며진다.

· 관람을 희망하는 구민은 선착순으로 무료입장할 수 있다.

해운대우체국 사랑의 헌혈증 모으기

(부산=연합뉴스) 부산체신청 해운대우체국(국장 최도철)은 매년 헌혈 인구의 감소에 따른 혈액수급 부족을 해소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2일 '사랑의 헌혈증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해운대우체국 직원 30여명은 이날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해 받은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부산아쿠아리움 수중 산타 마술쇼

(부산=연합뉴스) 부산아쿠아리움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한달 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산타아쿠아리스트와 함께하는 수중 마술쇼'를 진행한다.

국내 최고 7m 산호 수조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는 산타로 변신한 아쿠아리스트와 산타 사회자가 이색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한다.

국제신문

2010년 12월 10일
02면

부산시 청렴도 광역단체 최하위 '불명예'

권익위...울산·경남도 '미흡'

배제한 정유선 기자 myway@kookje.co.kr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3개 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시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6개 시·도 중 하위권 그룹에 해당하는 '미흡'에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평가는 5개 그룹(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이뤄졌으며, 부산시는 울산시 경남도 등 9개 시·도가 함께 '미흡' 평가를 받았다.

청렴도 평가에서 ▷ '매우 우수'는 서울시 ▷ '우수'는 충북도 전북도 강

2010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비교
(괄호 안은 종합청렴도 점수)

	광역자치단체
매우 우수	서울특별시 (9.01)
	충청북도 (8.88)
	전라북도 (8.85)
우수	강원도 (8.84)
	광주광역시 (8.78)
	경기도 (8.69)
보통	경상북도 (8.47)
	대구광역시 (8.42)
	울산광역시 (8.40)
	경상남도 (8.40)
	제주특별자치도 (8.39)
미흡	충청남도 (8.38)
	전라남도 (8.38)
	인천광역시 (8.33)
	대전광역시 (8.33)
	부산광역시 (8.25)
매우 미흡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원도 광주시 경기도 등 5곳 ▷ '보통'은 경북도가 차지했다.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중 전국 86개 군(郡) 평가에서 부산 기장군이 최하위권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자치구 중에서는 수영구, 동래구가 '매우 우수', 중구 영도구 연제구 금정구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사하구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의 광역자치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분의 경우 경남도는 '우수', 부산시는 '보통', 울산시는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의 기초단체 가운데 수영구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분에서도 최상위권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시·도교육청 가운데는 부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보통', 울산교육청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지역교육

청 가운데는 경남 산청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부산 남부·해운대교육청, 경남 김해교육청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또 지방공사·공단 가운데는 부산환경공단도 전국 최고점수를 받은 반면 부산시설공단, 부산도시공사는 최하위권이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지자체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 ▷ 예산집행의 적정성 ▷ 업무지시의 공정성 ▷ 각종 부패방지제도 시행 ▷ 공사계약의 적법성 ▷ 조직문화 건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8*11.6)cm

부산일보

2010년 12월 10일
13면

부산시 청렴도 최하위, 어쩌다 이 지경 됐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2010년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 울산, 경남의 청렴도는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그룹인 '미흡' 수준이었다. 평가는 5개 그룹(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이뤄졌으나 부산시는 10점 만점에 8.25점으로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2009년 청렴도에선 경남이 꼴찌인 16위, 울산이 15위, 부산이 14위였다. 부산은 2008년에도 14위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의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참으로 닦부끄러운 일이다.

지난해 이맘때쯤 부·울·경 지자체가 청렴도 꼴찌 닦음을 했을 때 요란한 대책들이 나왔다. 부산시는 내부 고발시스템 도입과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반부패 청렴대책'을 내놓았다. 경남도도 대(對)도민 사과와 함께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공무원은 적발 즉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시행한다고 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실행력이 뒷받침되

지 않은 대책들만 땀질 식으로 내놓았다는 방증 아닌가. 지난해 9위였던 서울시가 1위가 되고, 자치구 청렴도에서 꼴찌수준이었던 부산 수영구가 올해 전국 2위로 올라선 것은 뭘 말하는가. 수영구의 경우 내부고발과 소통을 위한 '직원소리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행에 옮긴 결과다.

부산시가 꼴찌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말로만 청렴을 외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청렴도가 무엇인가. 단순히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를 말한다. 부산의 경쟁력과도 연결되고 지자체의 명예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지, 그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용두사미식 대책으로 결코 '청렴도 모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4.9*9.0)cm

부산일보

2010년 12월 10일
06면

부산시 청렴도 꼴찌

사하구·기장군 ‘매우 미흡’

수영구·동래구 ‘매우 우수’

부산시가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 부산시 설공단·부산도시공사·부산대병원·부산의료원 등은 청렴도가 저조한 수준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38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21개 공기업 등 711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지난 3개월에 걸쳐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공직자 22만 6천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 내부와 외부 청렴도, 종합청렴도를 도출했다.

조사결과 부산시는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0.11점 더 떨어진 8.25점을 기록,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8.55점이다. 이는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위로 급상승한 서울시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교육청(7.95)과 경남교육청(7.92)은 ‘보통’, 울산교육청(7.71)은 ‘미흡’ 등급을 차지했다.

기초단체 자치구 중 부산 수영구가 8.77점으로 평가대상 69개 자치구 가운데 서울 마포구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동래구는 다섯 번째로 청렴도가 높았다.

이에 반해 부산 사하구는 8.22점으로 69개 자치구 중 뒤에서 세 번째로 청렴도가 낮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부산 기장군도 77.94점으로 86개 자치군 가운데 77위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권기택 기자 ktik@

(7.2*17.0)cm



부산 기초단체들, 청렴도 결과 놓고 ‘희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되자 부산 기초자치단체들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수영구는 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8.77점으로 전국 자치구 중 2위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 부산 기초자치단체의 1위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수영구는 1년만에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영구는 지난해 12월14일 청렴다짐을 위한 직원자정결의 대회를 가졌고 조직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구청장 핫라인인 ‘직원소리함’을 설치하는 등 17개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10일 강조했다.

특히 1부서 1청렴시책, 공무원 부정부패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민원부조리신고 엽서제, 부패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업소에 부조리 근절 협조 서한문 배부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시행했다.

박현욱 수영구청장은 “내년에도 전 직원 워크숍,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청렴 으뜸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영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년 부패방지시책평가부문에서도 매우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기장군은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꼴찌를 차지해 침울한 분위기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측정기간이 군수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9년 7월1일부터 1년간 이라고 하지만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무원 의식 전환과 공직사회 풍토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임기내에 기장군을 청렴 1번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10 09:38

국제신문

2010년 12월 11일
07면

청렴도 측정 결과에 지자체 '희비'

지난해 꼴찌 수영구 1위 도약
최하위 기장군 "전임자 탓" 눈총

송진영 장호정 기자 roll@kookje.co.kr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꼴찌에서 1위로 올라선 수영구는 '또한번 도약'을 다짐한 반면 꼴찌를 한 기장군은 '전임 구청장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수영구는 지난 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8.77점을

받아 부산 지자체 중 1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수영구 직원들에게 청렴도 1위는 남다르다. 지난해 꼴찌를 한 뒤 곧장 직원자정 결의를 열어 각오를 다진 끝에 1위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특히 수영구는 1부서 1청렴시책, 공무원 부정부패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민원부조리신고 엄서제, 부패가 유발될 가능성 있는 업소에 부조리 근절 협조 서한문 배부 등 17개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덕분에 수영구는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 평가 부문에서도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박 구청장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1년 만에 변화했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의 16개 기초단체 중 꼴찌를 차지한 기장군은 자성보다는 전임 군수 재임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기장군은 꼴찌를 차지했는데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알리기도 했다. 기장군은 보도자료의 제목에 측정기간이 2009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민선5기 출범 전)라고 적시했고, 본문에도 두 차례나 강조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청렴도 최하위를 받은 직원들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임무이자 능력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임기 내에 기장군을 청렴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15.5*10.1)cm

국제신문

2010년 12월 11일
23면

혁신 부르짖는 부산시, 청렴도는 왜 꼴찌인가

부산시가 또다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시가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시, 경남도 등 9개 시·도가 함께 하위권에 포함됐지만 점수 자체가 가장 낮아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14위를 기록했으니 3년 연속 최하위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2005년 5위에서 이듬해 14위로 떨어진 이래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단 한 번의 금품비리도 해임 이상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신고포상금을 10억 원이나 내걸고 내부고발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올 초였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강력한 부패 척결을 거듭 강조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부서 단위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마일리지제까지 도입했지만 허사가 됐다.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는데도 청렴도가 악화됐다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7위로 뛰어올랐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곧 선진사회로 가는 첩경이 된다. 입만 열면 국제도시, 선진도시를 부르짖는 부산시가 정작 도시 선진화의 기본요건인 청렴도가 꼴찌여서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OECD에서도 거의 바닥 수준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면 세계적인 부패도시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래서야 어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

부산시는 열일을 제쳐두고라도 청렴도부터 제고해야 한다. 부패의 뿌리를 뽑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교육청의 경우에서 보듯 노력하면 금세 나아지는 게 공직사회의 청렴도이기도 하다. 지난해 꼴찌였던 수영구가 올해엔 전국 2위로 급상승한 것만 봐도 그렇다. 말로만 청렴, 청렴할 게 아니라 강력한 의지에 지속적인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다. 업무 추진비, 입찰 등 업무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투명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조속히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

(15.1*10.1)cm



〈부산소식〉 광안리해수욕장에 대형 트리 설치

광안리해수욕장에 대형 트리 설치

(부산=연합뉴스) 부산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입구에 대형트리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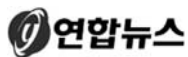
광안해수욕장에 설치되는 높이 8m 크기의 대형트리는 겨울을 상징하는 LED 전구를 사용해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야경과 더불어 낭만과 추억을 제공하게 된다.

수영구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

(부산=연합뉴스)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수영구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 봉사’를 14일부터 나흘간 진행한다.

이 기간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회장 조기호)에서 배추 500포기로 김장을 담가 저소득 150가구에 전달하고 수영구 여성자원봉사원회(회장 고분순)도 홀트수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추 220포기로 김치를 만들어 저소득가정 65가구에 전달한다.

수영구 새마을부녀회(회장 윤옥순)에서도 7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 1천포기의 김치를 담가 홀몸노인 등 100가구에 전달하고 여성단체, 아파트부녀회 등도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를 벌인다.



〈부산소식〉

수영구노인복지관 실버시네마 엑스포

(부산=연합뉴스) 부산 수영구 노인복지관은 23일과 24일 ‘영화와 UCC’라는 주제로 제3회 실버시네마 엑스포를 갖는다.

이 행사에는 서울노인영화제 대상작 상영, 영화감상, 추억의 영화포스터 전시회, 추억의 영화음악 감상 등이 마련된다.

투명행정 현장 : 행정공개로 경쟁력 키운다

(부산. 광주. 옥천=연합뉴스) 박창수 형민주 박병기 기자 = 단체장의 일과에서부터 민원처리 과정, 업무추진비 상세 명세, 각종 회의록을 공개하는 기초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단체장들은 이런 공개행정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부정부패를 막고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산 박현욱 수영구청장

“08:30 간부회의, 09:00 김장 담그기, 10:00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10:30 의회 정례회, 12:00 지역희망공헌사업 간담회, 18:00 주부 모니터단 월례회...”

부산 수영구 박현욱(한나라당) 구청장이 홈페이지(www.suyeong.go.kr)를 통해 공개한 이달 14일 일과다.

박 청장은 구청 홈페이지와 함께 별도로 ‘열린 청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매일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하는지 주간일정을 공개하고 선거공약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다. 이곳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도 한다.

또 각종 인.허가 내용을 접수 단계에서부터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구청을 방문한 모든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만족도를 조사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구청과 거래하는 모든 업체에 박 청장이 편지를 보내 불편 사항을 듣는 방법으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런 공개행정은 공무원의 청렴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영구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부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2위에 해당한다.

“공무원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의 가장 큰 미덕은 청렴이다”라는 박 청장의 소신이 성과를 낸 것이다.

청사 곳곳에 ‘직원 소리함’을 설치해 놓고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불만사항을 넣도록 했는데 매주 박 청장이 직접 자물쇠를 열어 확인한다.

박 청장은 “행정을 공개하는 것이 공무원의 부정을 막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을 방법”이라며 “이런 공개행정이 자리를 잡으려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광주 민형배 광산구청장

“해당 부서에서 불가한 사항은 구청장을 만나도 불가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공무원 외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나 직소 민원실에서 처리해 구청장 면담이 꼭 필요한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11월16일 구청기록)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민주당)가 결재서류와 간담회 발언 내용, 일일 회의 내용을 그대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눈길을 끈다.

회의 내용은 구청장의 세부적인 발언 내

용과 담당 직원의 제안까지 구청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

민 구청장의 취임 직후인 지난 7월부터 공개된 일일 구청기록을 보면 구청의 행정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민원인과 대담 내용까지 일일이 기록하고 내부에 공개해 민원을 왜곡 없이 제대로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각 부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전자게시판을 통해 다른 부서도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창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민 구청장은 “행정의 투명성은 기록에서 나온다”며 “구청의 모든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 역사적, 증거적 가치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김영만 옥천군수

‘도민체전 유공자 만찬 29만원(유×× 등 10명, 카드), 병원입원 직원 위로금 5만원(재무과장, 현금), 중앙부처 방문 특산물 전달 20만5천원(국토부 김×× 주무관 등 4명, 이체)’

충북 옥천군이 인터넷 홈페이지(www.oc.go.kr)를 통해 공개한 김영만(61.자유선진당) 군수의 11월 업무추진비 사용명세다.

매월 날짜.금액.사유.집행방식 등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군수가 한 달 동안 누구를 왜 만났고, 어떤 자리를 가졌는지 낱낱이 알 수 있다.

김 군수는 취임 직후 공무원 인사.징계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 인사위원을

공개 모집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민간보조사업 등의 예산편성권도 민간에 넘기는 등 전에 없던 투명·공개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김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 최대 권한인 ‘인사와 예산권’의 일부를 민간에 위임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조직의 줄서기 문화도 막아보겠다는 의지다.

개방형 감사관제와 행정처분 배심제를 도입하기 위해 감사부서도 독립시켰다.

군수·부군수가 맡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과감하게 민간에 넘기고자 임기가 찬 위원자리는 무조건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위원회마다 다양한 직종의 주민을 참여시키고 위원장도 호선 방식으로 선출해 기능을 회복시키면 자치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의 이런 행정은 당적이 다른 군 의원으로부터도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옥천군의회 김규원(65.한나라당) 의원은 “비록 당은 다르지만,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 군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가 내놓은 다양한 시책들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공직사회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cs@yna.co.kr

minu21@yna.co.kr

bgi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23 07:59 송고

수영구 비치-그린아파트 최우수 선정

(부산=연합뉴스) 공동주택의 살기좋은 주거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2010 부산시 아파트 한가죽운동 평가'에서 수영구 광안1동에 위치한 '비치-그린아파트'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됐다.

비치-그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여가선용,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한마음 도서관을 마련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생활쓰레기 사진전시회, 환경사랑 실천 캠페인, 친환경 절전, 아파트 녹화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24 18:33 송고

국제신문

2010년 12월 25일
03면

설계 바꾼 광안리 인공섬 사업 본궤도

공연장 등 각종 문화시설 갖춘
가로 80세로 120m 규모

“사업성 없고 환경파괴”여론에
잠제식 방파제 아닌
이동식 부유물로 설계 변경
29일 사업설명회 개최



설 사업이 기본 설계 변경을 거쳐 조
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수영구는 오는 29일 '가
칭)웨일크루즈' 사업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신정
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시민단체
대표, 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허
프스아일랜드가 사업제안서를 발표

할 예정이다. 시와 수영구는 해상 부
유물 명칭을 당초 명명된 마린 아일
랜드에서 웨일크루즈로 변경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9일 '플로팅 아
일랜드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
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플로팅 아일
랜드를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락매립지-광안대교 해상에 약 1
만 m 규모(가로 80m, 세로 120m)로
조성할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상부
시설로는 공연장과 수변(천수)공원,
영화관, 전시·판매시설,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잡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밝힐 웨
일크루즈도 위치와 규모, 상부시설
은 마린 아일랜드와 거의 유사한 것

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 비용을 낮
추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잠제
식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이동식 해상 부유물로 설계를 변경
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시 관
계자는 "웨일크루즈는 해상 부유물
이라기보다 선박 개념으로 설계됐
다"며 "바다를 때릴때 조정하는 섬
(아일랜드)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명칭을 호화유람선을
뜻하는 웨일크루즈로 잠정 바꾸었
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사업 설명회
와 함께 본격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
는 한편, 시민 공모를 통해 해상 부유
물의 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마린 아일랜드의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0.92로
기준치(1.0)보다 낮아 사업성이 부
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건
립방식으로는 인공섬 외곽시설로서
바다 수면 아래에 잠기는 '잠제식 방
파제'가 제안됐는데, 이 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해저 지형 변동 등에 대
한 수리모형 실험과 정밀 분석이 반
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웨일크루즈는
이동이 가능한 선박개념의 부유물로
써 종전 마린 아일랜드에 비해 사업
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였다"며 "웨
일크루즈는 향후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확
신한다"고 말했다.

창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환경훼손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논
란(본지 11월 9일자 1면 보도 등)을
빚어온 부산 광안리 해상 부유물 건

(26.0×10.6)cm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 수상관광호텔이 들어설 전망이다.

부산시는 34개 객실을 갖춘 9천t급 수상관광호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산 크루즈아일랜드 측과 세부 추진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호텔은 부두에 고정하는 과거 수상호텔과 달리 실제 선박으로 민락부두와 광안리 앞바다를 오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호텔 안에는 객실은 물론 공연시설과 수영장, 식당 등을 갖추어 예정이다.

공연장은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제작돼 육지에 배를 대면 백사장에서조차 선상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기존 선박을 개조하는 대신 호텔 전용선박으로 새로 만들기로 해 이르면 2013년 중순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과 다른 완전 새로운 방식의 수상호텔이어서 부산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p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26 06:40 송고



부산 광안리에 해상 관광컨벤션 건립 추진

㈜부산크루즈, 1천억원 들여 9천t급 무동력 선박 건조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에 초대형 해상 관광 컨벤션 건립이 추진된다.

부산시와 ㈜부산크루즈는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 길이 130m, 폭 60m, 면적 7천800㎡ 규모의 가칭 '웨일 크루즈(Whale Cruise)'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일 이 시설물은 9천t급 무동력 선박(Barge)으로, 4층 규모로 건조될 예정이다.

1층은 컨벤션홀(대. 중. 소 회의실), 콘퍼런스 방, 뷔페식당 등 컨벤션 관련 시설, 2층은 2개의 수영장과 명품숍, 야외공연장, 3층은 34개 객실을 갖춘 호텔과 전망대, 지하 1층은 엔터테인먼트, 영화관, 해양 테마별 체험관 등 청소년을 위한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다.

각종 스포츠와 뉴스 등을 중계할 대형 스크린, 분수쇼, 라이브쇼 등을 연출할 이벤트 공간도 조성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1천억원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시와 ㈜부산 크루즈는 내년 3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3년 3월까지 선박 제작을 완료한 뒤 그해 4월 개장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웨일 크루즈 사업은 무동력 선박으로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태풍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사태에 대비해 잭 업(Jack Up) 공법으로 추진된다"며 "해양관광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구축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 크루즈는 2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웨일 크루즈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s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27 16:05 송고

朝鮮日報

2010년 12월 28일
14면

광안리 바다에 '호화 선박 리조트' 뜬다

대형 바지선에 호텔 등 시설
민간자본 1000억여원 투입해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에 호텔·공연장·레스토랑·테마체험관 등을 갖춘 '선박 리조트'가 등장한다. 부산시는 2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웨일 크루즈(Whale Cruise·조감도)' 사업제안 설명회를 연다. 이 사업은 (주)부산크루즈아일랜드가 제안한 것으로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에 길이 130m, 폭 60m, 면적 7800㎡ 규모의 무동력 선박, 바지선을 띄워 리조트처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총중량 9000t의 대형 선박인 이 '웨일 크루즈'는 지하 1층~지상 4층으

로 이뤄진다.

지하 1층엔 아이들을 위한 테마체험관과 영화관, 1층엔 컨벤션홀(대·중·소회의실), 콘퍼런스 방, 뷔페식당 등 컨벤션 관련 시설, 2층엔 2개의 수영장과 명품숍, 야외공연장, 3층엔 34개 객실을 갖춘 호텔이 각각 들어선다. 뱃머리엔 전망대와 소정원이 조성되고, 뱃꼬리엔 공연장이 만들어진다.

배 좌우엔 고래 그림이 붙여지고 수영장 옆에 대형 분수대가 만들어져 고래의 숨구멍처럼 물을 뿜어내게 한

다. 그래서 이름에 '웨일(Whale)'이 들어갔다. 부산크루즈아일랜드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1000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산시와 (주)부산크루즈아일랜드는 내년 3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3년 3월까지 선박 제작을 완료한 뒤 그해 4월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옹호동 등의 선착장에서 작은 배를 타고 '웨일 크루즈'로 가는 식으로 운영된다. 부산시측은 "웨일 크루즈 사업은 무동력 선박으로 환경이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광안대교와 불꽃축제와 함께 광안리의 세계적 볼거리를 지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park21@chosun.com

(15.4*10.5)cm

한겨레

2010년 12월 28일
12B면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 '관광 바지선'

4층짜리 9천t급...호텔 등 추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에 떠 있는 초대형 해상관광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부산시와 (주)부산크루즈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 길이 130m, 너비 60m, 면적 7800㎡ 규모의 '웨일 크루즈'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일 이 시설물은 9천t급 무동력 바지선으로, 4층 규모로 건조될 예정이다. 지하 1층은 테마체험관, 지상 1층은 컨벤션 관련 시설, 2층은 2개의 수영장과 야외공연장, 3층은 34개 객실을 갖춘 호텔과 전망대로 꾸며진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1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와 (주)부산크루즈는 내년 3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행

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3년 3월까지 선박 제작을 끝낸 뒤 그해 4월 개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동력 선박으로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태풍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 잭업(Jack Up)공법으로 추진된다"며 "해양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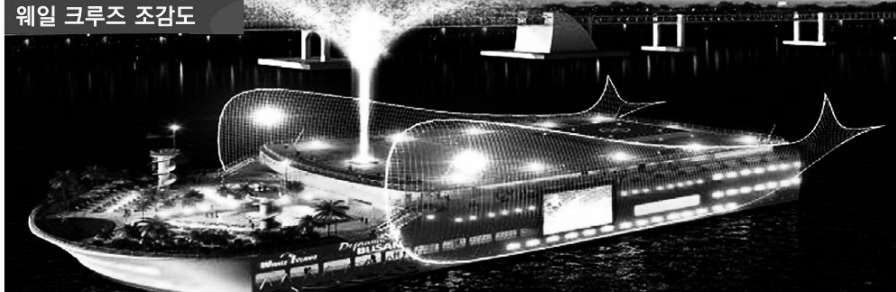
시와 (주)부산크루즈는 2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수윤 기자 sy@hani.co.kr

(18.0*6.3)cm

부산일보

2010년 12월 28일
03면

웨일 크루즈 조감도



웨일 크루즈 위치도



광안리 바다에 해상호텔 선다

〈웨일 크루즈〉

**폭 60m 대형 리조트에
컨벤션홀 등 각종 시설
1천억 들여 2013년 개장**

바다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이용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부산에서는 바다 위에 관광자원을 건설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부산의 꿈은 사업성과 안전 문제, 환경 논란 등에 막혀 번번히 좌절돼 왔다.

해운대 동백섬 옆에 크루즈선을 개조해 띄웠던 국내 최초 해상호텔은 2003년 태풍 매미 때 좌초됐고, 광안대교 현수교 주탑 아래 2천여평 콘크리트 구조물에 해상카페 등을 민자로 유치하려던 계획도 안전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광안리 앞바다 인공섬도 사업성과 환경 훼손 논란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광안리 앞바다에 해상 크루즈 호텔 사업이 추진돼 사업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동력 바지선 형태의 선박으로 환경 논란을 피하고 앵커를 내려 호텔을 파도 위로 들어올리는 잭 업(Jack Up) 공법으로 태풍 등 재난상황에도 대비해 안정성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산크루즈 아일랜드(대표 박영근)라는 민간 사업자가 아이디어와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에 나선 상황에서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를 중심으로 ㈜삼미건설, ㈜삼정기업, ㈜세정, ㈜DSE, ㈜영창신기술, ㈜다나리처사, ㈜동영폴드프라자 등 부산지역 기업들이 사업 참여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여기에 부산시와 수영구청이 공유수면 점유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사업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무동력 크루즈 해상호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1천억원이며 2013년 4월 개장 예정이다.

㈜부산크루즈아일랜드는 이 해상호텔의 이름을 웨일 크루즈로 짓고 해상호텔 디자인도 고래의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웨일 크루즈는 폭 60m, 길이 130m에 9천t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등 4층 규모로 건조된다.

지하 1층에 상설영화관 매직쇼 연극관 해양테마별 체험관이 들어서고 1층에는 컨벤션홀 식당 컨퍼런스룸, 2층에는 수영장 야외공연장 고급 레스토랑, 3층에는 호텔숙박시설, 테마별 휴식공간 등이 갖춰진다.

부산시와 수영구, ㈜부산크루즈 아일랜드는 2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허남식 시장과 박현욱 수영구청장, 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웨일 크루즈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강윤경·윤여진 기자 kyk99@

(15.2*24.1)cm



수영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아파트 70곳 선정

(부산=연합뉴스) 부산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87개 아파트 중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8% 이상을 감량한 남천1동 뉴비치아파트 등 70곳을 선정,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수영구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기준배출량 지정 배출제 시행하면서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를 801t을 줄여 5천800여만원의 처리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28 17:21 송고



수영구, 국군장병 우편발송 서비스

(부산=연합뉴스) 부산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지역에 거주하며 현역으로 군에 입대한 장병에 대해 '새수영'(수영구보)을 근무부대에 우편으로 발송, 고향의 소식을 알려주는 국군장병 우편발송 서비스를 한다.

수영구에서 발행하는 지역 소식지로 매월 25일 발행하는 새수영은 수영구 구정, 복지, 문화, 건강, 교육, 미담사례, 우리마을, 독자투고, 수영구 의회 의정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문의 수영구청 문화공보과 ☎ 051-610-4071~3, 4076)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30 16:52 송고

부산 수영구 ‘상복’ ... 올해 53개 분야 수상, 상금 9억여원 챙겨

입력 2010. 12. 30 (목) 10:24

박현욱구청장 “사심없이 오직 지역 주민과 지역 소재 기업 발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뛰겠다” 밝혀

부산 수영구가 올해 정부와 부산시,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각종 업무평가에서 무려 53개 분야에서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기록한 개청 이래 최다 수상(45개)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현재 진행중인 5개 분야의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어 수상기록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영구는 53개 분야 수상으로 9억1000만원의 사업비와 2800만원의 시상금도 받아 수영구의 구 재정 수입에도 기여했다.

수영구가 가장 자랑으로 손꼽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구(전국 2위, 부산 1위)로 선정된 것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꼴찌를 기록한 수영구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강도높은 시책을 통해 1년 만에 1위에 올라서면서 직원들의 자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수영구는 기획재정부의 2009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집행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효율화 우수 지자체, 하반기 물가안정대책 평가 우수기관 등 중앙부처 11개 부문평가에서 수상했다.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파트 한 가족운동 추진상황평가, 주요 관광지 우수공연 및 이벤트 선정, 물가안정관리실적 평가, 여성가족정책평가, 자원순환행정종합평가, 예방접종사업평가 등에서 수영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37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대상, 한국 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한 2010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민간부문에서도 5개 상을 받았다.

박현욱 구청장은 “여러 상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게 가장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사심을 없애고 일

치 단결, 전국 최고 청렴도를 자랑하는 기초자치단체 명예를 이어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 관내 소재 기업발전을 온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부산 =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부산 수영구 ‘상복’ ... 올해 53개 분야 수상

청렴도 평가 전국 2위 자긍심.. 사업비 9억원도 받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수영구(구청장 박현욱)가 올해 정부와 부산시,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각종 업무평가에서 무려 53개 분야에서 수상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개청 이래 최다 수상(45개)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현재 진행중인 5개 분야의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어 수상기록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53개 분야 수상으로 9억1천만원의 사업비와 2천800만원의 시상금도 받아 수영구의 구재정수입에도 기여했다.

수영구가 가장 자랑으로 손꼽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구(전국 2위, 부산 1위)로 선정된 것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꼴찌를 기록한 수영구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강도높은 시책을 통해 1년만에 1위에 올라서면서 직원들의 자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

수영구는 기획재정부의 2009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집행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효율화 우수 지자체, 하반기 물가안정대책 평가 우수기관 등 중앙부처 11개 부문평가에서 수상했다.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파트 한 가족운동 추진상황평가, 주요관광지 우수공연 및 이벤트 선정, 물가안정관리실적 평가, 여성가족정책평가, 자원순환행정종합평가, 예방접종사업평가 등에서 수영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37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다.

또 (사)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대상, 한국 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한 2010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민간부문에서도 5개 상을 받

있다.

박현욱 수영구청장은 “많은 수상실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30 09:24 송고

한국일보

2010년 12월 31일
10D면

부산 수영구 ‘상복 터졌네’

올해 정부·시·민간부문 53개 수상

부산 수영구가 올해 정부와 부산시, 민간단체로부터 무려 53개의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최다 수상(45개)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으로 현재 진행중인 5개 분야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수상으로 9억1,000만원의 사업비와 2,8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재정에도 기여했다.

수영구가 가장 자랑하는 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구(전국 2위, 부산 1위)로 선정된 것. 지난해 부산 꼴찌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시책을 통해 1년 만에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수영구는 또 기획재정부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집행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효율화 우수 지자체 등 중앙부처 11개 부문평가에서도 수상했다.

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한 가족운동 추진상 황평가 최우수기관 등 37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다.

또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대상 등 민간부문에서도 5개 상을 수상했다.

박현욱 수영구청장은 “전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10.2*12.2)cm